

“부모님이 곁에 계시는 건 큰 축복”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②8 우리 엄마를 찾아 주세요

입양아들기

“프랑스 입양아인데 내가 좀 도와줘.” 대학생 M양은 봉사센터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다. 19살 된 한국인 프랑스 입양아가 서울에 있는데 안내해 줄 사람이 없으니 도와주라는 것이었다. M양은 영어는 할 줄 알았지만 입양아는 만나본 적이 없어 좀 걱정이 되었다.

“한국에 처음이예요. 친엄마를 찾으려고 왔어요. 여기 서류가 있으니 물어보면 된다고 했어요.” 착해 보이는 그 남학생이 말했다.

고3이라고 했다. 사연을 들어보니 마음이 아팠다. 세 살 때 입양된 그는 영문을 모르고 살다가 초등학생이 된 후에야 자기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백인 부모가 잘 해 주기는 했으나 한국의 친부모 생각이 간절했다. 얼굴도 모르지만 무조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조금씩 돈을 저금했다. 한국에 가는 비행기 값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예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더 돈을 모았다. 드디어 고 3이 된 지금에야 간신히 비행기 값이 되어서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난 한국사람이예요

가진 것이라곤 입양 당시 서류 몇 장뿐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없고 엄마가 딸인 것으로 되어 있었다. “친엄마 만나길 너무 기다렸어요. 늘지도 않고 일해서 힘들게 돈 모았고. 우리 엄

마 빨리 찾아 주세요.” 열심히 말하는 그의 눈을 보니 M양은 목이 메었다. “양부모님은 잘 대해 주시나?” “네, 그래도 이런 돈은 안 주세요.” 한숨을 탄다.

서류를 보니 지방의 한 도시의 입양 기관이었다. 그는 당장 내일 가져다와 그리로 가자고 한다. 그러나 M양은 혹시 몰라 그 기관에 전화를 했다.

담당자가 전화를 받아서, 한참을 이것저것 물어본 후에 “지금 그 학생 옆에 있어요? 그 학생은 한국말 못 알아듣지요?” “네, 그런데 왜 물어

서울 온 프랑스 입양아 안내 맡아 친모 찾아온 사연 듣고 눈물 펄펄 부모님에 투정 부리던 자신 반성

세요?” “아, 혹시 옆에서 들을까봐 그래요.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세요. 학생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안 돼요.” M양은 가슴이 찢어졌다. “친엄마 기록은 있는데 엄마가 그 당시가 정신이 이상했던 것으로 병원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이제 와서 찾는다 해도 정신이 아닌 엄마를 만나서 뭐하겠어요. 아들 알아볼 리도 없고. 그러니 이런 경우 애들에게는 그냥 ‘찾을 수 없다’고 말해주는 게 나아요. 물론 애 아빠 기록은 없고.” M양은 놀라서 “그래도 찾기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글쎄, 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엄마 만나면 더 실망이고

충격이지, 차라니 못 찾는다고 하면 엄마에 대해 좋은 마음이라도 갖게 되니 그게 더 나아요. 잘 알아서 찾을 방법이 없다고 말해 주세요.” 하였다.

전화를 끊고 M양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뭐예요? 우리 엄마 찾았대요?” 할 수 없이 “어떡하니. 거기 가도 소용이 없애. 너의 엄마는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고 말해 주었다. 당장 그는 얼굴색이 변하며 화를 냈다. “말도 안 돼요! 기록이 있다고 했어요. 무조건 찾아야 돼요!” 그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내가 19년을 기다린 건데 꼭 엄마를 만나야 돼요! 한국 오려고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

“난 너무 싫었어요. 왜 한국은 외국에 애를 보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백인이고 난 피부색도 생김새도 완전 다르잖아요. 꼬마 때부터 어릴 때도 누굴 만나도 내가 입양 아란 게 표가 났어요. 나는 진짜 자식이 아니잖아요. 너무 슬프고 화가 났어요.” “난 한국사람이예요. 한국 엄마가 내 엄마고요. 꼭 찾아야 해요. 안 되면 해마다 다시 올 거예요!” 그를 설득하다가 결국 M양은 그를 붙잡고 같이 영영 올게 되었다. 그는 다른 단체에 또 알아보겠다고 버텼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M양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친부모님이 가슴에 감사하게 되었다. 다른 집보다 넉넉하지 않아 하고 싶은 것을 못해 늘 불만이 많았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적어도 내게 이런 고통은 주시지 않았거든요. 야단맞아도 내 부모고, 또 나 잘되라고 하신 건데.” 갑자기 감사함이 마음 가득 차올랐다. 그 입양학생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아픔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 어떤 도움이라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황수경(동국대 선행과 강사)



월암 스님의 禪과 노동 ㉔ (끝)

농선 전통 계승·발전시켜야

(農禪)

반농반선(半農半禪)에 의한 자급자족의 선농관(禪農觀)에 대해 박용하(朴龍夏)는 “간도의 연길 명월촌 영봉촌에 집십여 상(畝)의 전지(田地)를 매득하고 교당을 설립하여 승려의 반농반선(半農半禪) 생활의 효시를 작(作)한지 벌써 심오 년이라 하니” <龍城禪師語錄> 권 2, p39) 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용성의 반농반선에 의한 선농불교의 정신은 자급자족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수행을 일치시키는 청구정신에 입각하고 있음을 석운애(釋雲厓)는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용성, 청구정신 입각 반농반선 주장 “진리는 일상의 實業 속에서 찾아야”

그러므로 선자(禪者)도 자기의 생명을 유지키 위하여 식물의 공급 방법인 농(農)을 결합하여야 한다. 농(農)으로써 육신의 생을 완전 보장한 후라야 정신의 생인 본지(本智)를 탐(達)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이른바 ‘농(農)으로써 육신의 생을 보장’ 하고, ‘정신의 생인 본지(本智)를 요달(요달)하기 위해 선(禪)을 참구하는 방식의 선농일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아울러 진리를 일상생활과 관계가 면해서 찾는 것보다 일상의 실업(實業)에서 찾는 것이 절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농반선(半農半禪)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과의 필연과 회인전과(回因轉果)의 가능과 불생 불멸(不生不滅)의 진리를 일상생활과 관계가 면해서 찾는 이보다 일상생활과 직접 관계를 가진 문제에서 찾는 것이 옹이하기 때문이며, 은연(隱然)한 경전에서 구하는 이보다 현저한 실업(實業)에서 구하는 것이 절경이기 때문에 반농반선(半農半禪)의 불교라야 된다는 것이다.<弘法友> 장간호, p40. 참조, 김광식,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p 82-83

용성의 반농반선의 선농불교 정신은 동시대의 선사 혁명(禪鳴)에 이어서 직접 선원에서의 일용(日用) 수행과목으로 “오전 학문(學問), 오후 노동(勞動), 야간 좌선(坐禪)”이 실현되어서 반선반농(半禪半農)을 선원의 목표로 설정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선농불교의 반농반선 사상과 실천을 백장정규의 보청에서 진일묘하여 불교개혁의 한 방편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한국 선종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4> 맺는말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 살펴보았듯이, 선종이 선

종다운 면모는 노동에 의한 자급자족에 있다. 수행과 노동의 일치에 의한 선농경수의 전통은 백장정규의 보청법(普請法)에 연원하여 면면부절 이어온 선종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즉 백장선사의 “하루 일하지 않으면(一日不作),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食)”는 보청정신은 조사선 시대에 제기되어서 선문의 오가칠종을 거쳐 오늘날까지 시행되어져 내려온 선종만의 독특한 기풍이라 할 수 있다.

오늘 우리의 선문에서도 “운력(運力)”이라는 이름으로 그 정신과 맥이 전승되고 있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옛 전통에 준하는 수행과 노동의 결수로써의 보청은 이미 사라져 가고 있다. 농선(農禪)의 전통을 오늘에 되살려 선종의 활발발한 선종을 진작하는 것이 당면 과제 중의 하나라고 여겨진다.

아울러 선종의 노동이 “중도노동(中道勞動)”으로 정의되어질 수 있다면 현대의 노동문제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까지 긍정적인 입장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선종의 중도노동의 정신과 가치를 오늘날 선문의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여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여기서 찾을 수 있겠다.

사실 선문의 보청(普請)은 소중한 선문화의 자산이다. 이런 문화적 자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오늘날 선문 남자의 역사적 과제이다. 그리고 보청에 의한 대중운력은 화합승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중도노동’ 현대 노동문제 해결의 열쇠 현대 선문의 핵심가치로 자리매김 해야

선종이 가장 선종다운 면모 역시 노동운력을 통한 역동적 수행과 깨달음의 발현에 있다고 하겠다. 노동운력을 현대 선문의 수증의 한 방편(修證方便)으로 재할용하여 현대적 의미의 청구정신으로 꽃피움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선종의 노동은 자급자족을 위한 교단의 경제적 지원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선농경수의 수행 방편으로 조사선 종풍의 선양에도 그 정초(定礎)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오늘날 한국 선불교는 불교개혁의 일환으로 실행된 근대 선종의 반농반선(半農半禪)의 정신과 실천을 자급에 되살려, 육신과 정신의 생명을 장양(長養)하는 수행으로 노동과 참선을 결속하는 전통을 재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문의 기풍이라 할 수 있겠다. <끝>

신영게시판

- 제1기 불교귀농학교=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9월 4일~11월 2일 매주 화·금 저녁 7시 제2기 불교귀농학교를 운영한다. 현장실습도 마련돼 있다. 9월 9일은 텃밭실습, 14~16일은 지리산 실상사지역공동체와 함께 2박3일 체험, 10월 28일은 인드라망 가을한마당이 열린다. 서울 양재동 인드라망교육센터에서 열리는 불교귀농학교의 수강료는 12만원. 부부가 같이 들으면 18만원이다. 귀농을 꿈꾸거나, 생명과 평화의 삶을 살고픈 사람은 8월 31일까지 불교귀농학교에 신청서를 넣으면 된다. (02576-1886)
- 수호사 효림원 케어복지사 8기 수강생 모집=사회복지법인 수호사 효림원이 취업과 봉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케어복지사 8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효림원은 2008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

비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전문 케어복지사를 양성하고자 나섰다. 9월 11일 개강하는 제8기 케어복지사 강좌는 6개월 동안 매주 화·수요일 오후 1시 40분 효림원 6층 강의실에서 강의가 열린다. 수강료는 40만원. 교육 수료 후 케어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02313-5124)

●제2회 지리산 문화제=하동 쟁개사, 철불사 등이 후원에 나서서 제2회 지리산문화제가 8월 25일 오전 11시부터 12시간 동안 하동 쟁개사면 평사리 공원에서 펼쳐진다. 65세 이상 어르신 영정 사진 찍어드리기, 시인과 함께 선진강변 걷기, 어린이 백일장, 새끼줄 꼬기 대회, 문화연대 자전거체통, 태일문화 그리기, 친환경 이크릴 수세미 뜨기, 하동차 마시기의 이벤트가 마련된다. 한영에 퍼포먼스, 안치환 노래, 김소현

판소리 등 다양한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063)636-1944

●우란분절 효자 효부 효행상 시상식=서울 불광사가 우란분절을 맞아 부모님께 헌신적으로 효행을 한 신도들을 뽑아 효행상을 시상한다. 8월 27일 오전 10시 열리는 시상식에서 우란분절 효자·효부 효행상 상패와 상금을 전달받게 된다. (02)413-6060

●묘심선원 삼천배 정진=서울 묘심선원이 8월 25일 오전 9시~오후 7시 삼천배 정진에 들어간다. 매일 한 번씩 삼천배 정진을 하고 있는 묘심선원은 청년 불자들이 주축이 되어 삼천배 정진을 이끌어 가고 있다. 매일 첫째주 금요일에는 능엄주 기도문, 셋째주 금요일에는 아미타 기도를 실시한다. (02)523-8005

元·氣·回·復 동경높은 최고의 선물!!!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을 최저가격으로 몰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진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약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부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정치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 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동경하옵는 스님, 오늘날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몸계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본초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은 천중, 지중, 인중,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 산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 (02)713-7798

- 별도상당(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당(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심마당 국립산물품질관리인증 (본식 51160-150)

발명특허 제 0355012호 제품공과 「항산화건강을 선도하는 벤처기업」

「수진사포닌 - SOD」에는 발명특허 셋!!!

항♥요법에 따르는 부작용♥♥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물 및 그 제조방법 등, 앞서가는 특허기술로 개발한 고려홍삼의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효능】 면역력 증강 작용 · 혈압 조정 작용 · 강장 강정 작용 · 노화방지 조절기능 · 피로회복 기능 · 당뇨예방

【효과】 항암제 투여 부작용의 완화(구토, 메스꺼움, 탈모, 피로감, 피부발진), 간, 위장, 신장 독성완화, 방사선 요법 시행후 부작용 완화

수진 사포닌 SOD에 관련된 특허 등록내용

- 특허 제 0355012호 : 항암요법에 따른 부작용 억제 효과를 향산화물 및 그 제조 방법
- 특허 제 0378518호 : 홍삼 유효 성분의 저분자화 방법
- 일본 특허 제 2097243호 : 황산산소 억제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과 혈압억제제
- 상표등록증 - 등록 제 0568521호 수진 사포닌 SOD
- 특허권자 : (주)수진바이오텍 · 특허기술평가신청 : 한국발명진흥회
- 특허기술평가기관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 수진사포닌-SOD는 수년전에 걸친 실험을 거쳐 특허등록을 마친 제품으로, 일본 임상실험체제의 눈문제 및 면역과 대역으로 양을 고집하는 암 지치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더 흡수하라, 홍삼의 氣!

홍삼성분의 흡수력을 높인 특허 「효소처리 홍삼성분(에스) - 홍육정

아무리 좋고 비싼 홍삼이라도 몸에 흡수가 안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특허기술(홍삼의 유효성분(사포닌)의 저분자화 방법)로 체내 흡수력을 높인 100% 효소처리 홍삼성분(홍육정, 건강을 더욱 흡수하세요!)

■ 홍육정 100g : 소비자가 80,000 → 특판가 60,000원
 ■ 홍육정 300g : 소비자가 220,000 → 특판가 170,000원

(주)수진바이오텍 심마당 021713-7798 / 021701-4716